



인, '47년전 불상봉안' 기념행사 성황

◇구랍 25일 인도 담마부미에서 거행된 암베드카르박사의 첫 불상 봉안 기념법회.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푸네 근교의 담마부미(Dhamma Bhoomi) 법의 땅에서는 구랍 25일 암베드카르 박사의 47년 전 첫 불상 봉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연인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과거의 불상 봉안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것이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만큼 인도의 불자들에게 의미 깊은 까닭은 인도 현대불교에서 처음으로 모셔진 부처님이 담마부미 법당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처님은 높이 약 50센티미터에 불과한 자그마한 석가모니 부처님 좌상으로, 인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리상자에 소중하게 모셔져있다.

담마부미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현대 인도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카르 박사가 1954년 세계 불교대회에 참석차 미얀마(당시 버마)의 랑군에 갔다가 인도로 모셔

참석하는 등 불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 1954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세계 불교대회에 참석한 것도 그러한 활동 중 하나인데, 그는 불교 대회에서 신생 인도 공화국의 친(親)불교적 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으며, 당시 인도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불상도 미얀마 현지에서 구했다고 전해진다.

담마부미 법당 옆에 임시로 가설된 무대에서 아침 10시부터 기념 법회를 시작으로, 행사는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삼귀의와 예불을 모신 후에는 인도

거행했던 1954년 당시 불교에 관심있던 2만여명의 암베드카르 지지자가 모여 점안식을 지켜보았다고 전해진다. 그 중에는 그 때를 기하여 부처님전에 귀의하여 불교도가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데, 지금 담마부미 법당을 관리하고 있는 무두카르 가이크와드(Mudhukar Gaikwad)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점안식 당시 11세의 소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불법에 귀의했으며,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면서 40년이 넘게 무두상 보시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담마부미 법당이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라 시설이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워낙 협소해,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담마부미 법당의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기존 법당 뒤쪽으로 큰 법당을 신축하는 불사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지난 91년 법당 건립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95년에는 부지 확보에 성공하였고, 2000년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게 되었다. 지난 해 7월에 기공식을 갖고 착공을 뜨기 했으나, 부지 구입에 기금을 쓴 이후 총 1억 8천만 루pee(한화 약 5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 푸나= 이지는 통신원

인도불교 돕기 사무국= (02)745-7799

높이 50cm의 좌상... 유리상자안치 불자 3만명 운집 8시간 대대적 법회

은 불상이다. 이 불상은 법당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박사의 사저에 모셨다가 같은 해 12월 25일 새로 지은 법당에 정식으로 모시고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근대에 들어서 인도인의 손으로 법당이 지어지고 불상이 모셔진 것은 이때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비록 암베드카르 박사가 정식으로 불법에 귀의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은 1956년이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불교 행사에

에서 몇 명 안되는 여성법사 중 한 명인 구나메가(Chunameghal) 법사를 비롯하여 여러 법사들의 법문이 이어졌고, 막강을 이용하여 인근 뽀르리 마을의 초등학생들의 시낭송과 법우들의 찬불가 가창제 분위기를 동구했다. 오후에는 담마부미 법당 건립 위원회의 주최로 다시 기념식이 열렸으며, 그 사이에도 참배객들의 행렬은 저녁 7시까지 넓은 법당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곳에 법당을 마련하고 불상 봉안식을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8. 한 생각 속의 삼천법계(一念三千)

신라 의상 스님은 <법상계>의 한 구절에서 "저 영원한 겁이 바로 한 생각이며, 한 생각이 곧 무량한 세월이네(無量遠劫即一念一念時無量劫)"라고 불교가 보는 인간과 시간의 장대한 일치를 설했다. 이처럼 불교의 여러 경전과 선어록에서는 인간의 한 생각 속에 삶과 죽음도 세계도 번뇌도 해탈도 시작된다고 한다.

중국 천태종의 제3조 천태 지의(538-597)는 <법화경> 방편품의 십여시(十如是)를 바탕으로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이라는 화두를 제시한다. 영원한 붓다의 존재를 웅변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 <법화경> 방편품에 교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일념삼천설은 바로 '한 생각 속에 삼천의 법계가 병존한다'고 시간과 존재를 파악하는 인간의 한 생각을 우주적인 시각에서 본다. 즉 사마의 모래알처럼 순간순간 흩어져가는 우리의 일념 속에 삼천 가지 법계, 즉 붓다의 세계에서 아귀 축생의 세계가 내재한다는 심오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법화경> 방편품의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한다.

고 설했다. 따라서 십여시×십법계는 100여시가 되며 여기에 1계마다 9계를 내장(內藏)하고 있으므로 10계가 호구(互具)하면 1000여시가 된다. 심지어 불계도 다른 9계를 내장하며 지옥도 다른 9계를 내장한다. 이를 '십계호구(十界互具)'라고 한다. 이 1000여시에 <대지도론> 권7에서 설해지는 오음세간(五陰世間) 중생세간(衆生世間) 국토세간(國土世間)을 상승(上乘)시켜 3000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계(佛界)에도 아귀, 지옥, 축생의 자원이 존재한다는 일념삼천설의 사상은 단순히 프리미티브한 선악 존재론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철저하게 원융(圓融)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불계에 마계의 차원이 병존한다는 시각은 심오한 원융이다. 바로 동체연기이며 동체대의 표현이다. 우리의 문제는 불계의 실상을 발현할 것인가, 아니면 마계의 풍환을 발현할 것인가의 문제이지만 일념삼천설은 확실히 실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 불교사상의 한 정점을 보여 준다. 우리는 종일토록 한 생각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일념삼천의 번뇌와 깨달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번뇌·깨달음 반복

철저한 원융 추구

한 생각에 삼천의 법계가 상호원융하고 있다는 일념삼천설의 시각은 보기에 따라서는 거대한 관념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으로 일념에 수천가지 코드를 무의적으로 집결한다. 따라서 일념삼천설은 인위적이고 사변적인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이 아니다. 일념삼천설은 당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일념을 소중히 여기려는 가르침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도 모두 그 일념의 실상 속에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일몰지기 이전의 불교란 본래 이렇게 산뜻한 가르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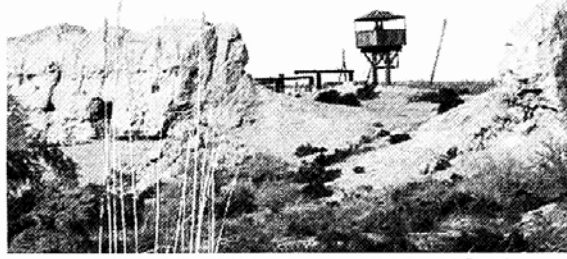
우리는 말로만 "불교를 위해서"라고 앞세우고 "불교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구호만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일체중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십여시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들만이 궁극에 도달할 수 있는唯佛與佛乃能究竟' 제법실상의 내용인 것이다.

지의는 십여시설을 바탕으로 일념삼천설을 제창한다. 그는 십여시에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10계(地獄·畜生·餓鬼·修羅·人間·天上·聲聞·緣覺·菩薩·佛)를 바탕으로 중생계를 10계로 규정하고 각각의 법계가 십여시를 갖추고 있다

한 생각에 삼천의 법계가 상호원융하고 있다는 일념삼천설의 시각은 보기에 따라서는 거대한 관념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으로 일념에 수천가지 코드를 무의적으로 집결한다. 따라서 일념삼천설은 인위적이고 사변적인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이 아니다. 일념삼천설은 당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일념을 소중히 여기려는 가르침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도 모두 그 일념의 실상 속에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일몰지기 이전의 불교란 본래 이렇게 산뜻한 가르침이었다.

■ 경학희 회주

우즈베키스탄·아프간 불교유적 보존작업 한창



◇작은 불상과 탑 등이 발굴된 우즈베키스탄 벡트리아의 흙무덤.

군사적 대립이 빈번했던 중앙아시아 국경지대에서 고대 불교유적 및 유물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소도시 벡트리아(Bactria)에서는 프랑스와 일 본의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조사단의 발굴 작업이 한창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계곡에서는 지난해 3월 탈레반군에 의해 파괴된 대불을 복원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슬람교의 성지로만 알려진 벡트리아에서 조사단이 발견한 불교유적은 이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기둥 모양의 흙무덤(사진)들로, 작은 불상을 봉

안한 밀실과 탑 등이 발굴됐다.

이에 근거해 조사단은 흙무덤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 곳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이 진흙으로 지은 수행공간으로 보고, 벡트리아를 당시 불교문화 교류의 주요 역할을 했던 쿠산 왕조의 중요 도시 중의 하나로 추정했다.

조사단은 실크로드를 왕래했던 고대 상인들과 학자들의 글에서 '티베트와 중국에 불교가 전래했던 주요 통로였다', '원기둥 모양의 수많은 수행처들이 메마른 땅 위에 세워졌다', '스님과 불자들이 출가 성도 열반행 등을 맞아 흙무덤을 수레했다' 등의 기록도 찾아냈다.

바미안 석불 복원추진

이에 대해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주재 사무국의 베리 레인(Berry Lane) 국장은 "유네스코는 다국적 조사단의 발견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구랍 29일 탈레반군에 의해 파괴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바미안 대불 2개를 복원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a.com

• 중국 치하 티베트 50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최근 발간한 <중국 공산정권 치하의 티베트 50년(Tibet under Communist China-50 Years)>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중국의 통치를 받은 티베트는 한마디로 몰락, 정신적 자살 모두를 일컫는 '몰락의 과정'을 밟았다. '국가의 몰락', '개혁에서 경제통합까지', '고원의 대포들', '새로운 주류', '철도 건설' 등 11개의 주제를 통해 티베트의 어제와 오늘을 다루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 수상 삼동 린포체(Samdong Rinpoche)는 "중국의 문화 및 상업화 정책으로 인해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티베트의 모든 분야에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몸과 마음의 조절법: <몸과 마음의 조절법> 대법론자 케은 <천태소지관(天台小止觀)>을 배운다는 부제를 단 책으로 좌선의 비결을 간결,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인간의 육체와 호흡, 마음의 미세한 조절방법을 밝힌 책이다. 중국불교 연구의 권위자이자 합기도 5단인 저자 가마다(鎌田茂雄)씨의 체험적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72쪽, 2100원

• 유식 독해법: <유식 독해법> 대법론자 케은 복잡하고 난해한 불교의 심리학적 유식(唯識)을 유식학의 제 1인자인 저자 오오타(太田久)교수가 친근한 화제를 섞어 차근차근 설명한 입문서다. <법부가 범부에게 호소하는 유식>의 개정판이다. 600쪽, 2205원

www.bulgong.com

세계 최초 ·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현재 국내에는 약 2,000만명의 불자가 있으나,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종교생활을 하는 신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2,000만 불자 모두를 진정한 의미의 불교신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 불자와 불교를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탄생하였습니다.

불공닷컴에는 불자라면 누구나 불교를 사랑하고, 법회에 참석하기위해 노력하고, 불사에 적극 참여하며, 불교를 가족 구성원 모두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 ~ 1,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사찰 법회에 참석자가 기껏 수십명에 불과한, 그런시대에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불공닷컴만이 가능한 서비스

1. 사찰 및 불교 신도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 제작 보급.
2. 사찰 중무관리프로그램 무료 보급.
3. 각종 불사 홍보, 기획, 접수대행
4. 불교용품 국내 최저가 보급(공정도 가격)
5. 각종 행사 및 법회 준비, 홍보
6. 사찰묘지, 납골당 설치에 관한 인,허가 및 조성(공사비 불공닷컴에서 부담가능)
7. 고민상담/사주상담, 스님과 일대일 상담
- 고민(사주)상담 해 주실 스님을 모십니다. -> 컴퓨터 모르는 분도 가능합니다.
8. 무료 이메일 10대 제공
9. ALL-in-One 포털서비스

www.Bulgong.com

불공닷컴

세계 최초 ·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젊은 불교, 힘 있는 불교, 행복한 불교를 위한 불공닷컴

문의 및 연락처 : 0502-108-0108 E-mail : 108@bulgong.com